

# 이라크, 전쟁과 평화

## —역사와 주권이양 이후의 상황과 전망

이희수

### 이라크 민주주의의 시련

“불행히도 우리 스스로 후세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왜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인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떠드는가? 이라크 국민 누구도 미국더러 민주주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독재와 투쟁하고, 필요하다면 피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할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에 의해 주어진 민주주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최근 중동 현지조사에서 내가 만난 한 이라크 지식인의 한탄이다. 이라크에는 아직도 불길과 화염이 치솟고 있다. 절망에 빠진 가난한 민중들은 전쟁이라는 아픈 기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 보지만, 그들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을 넘을 힘도 악순환의 사슬을 끊을 여건도 갖지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왜 그들이 미국의 침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나아가 침략자에게 나가달라고 외치면서 이라크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저항조직들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매일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야 되는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은 지금도 1년 반 이상 사담 후세인이라는 한 독재자를 가졌던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라크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으며, 단 한 명의 미국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다. 미국과 전쟁을 할 의사도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국가가 '테러와의 전쟁'이란 애매모호한 명분에 희생되어 이미 수만 명이 죽어나갔다. 중세 세계문화를 주도했던 그 당당한 문명의 중심지 바그다드는 초토화되었고, 성스러운 역사적 모스크를 표적 공습하여 예배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미사일에 맞아 죽어나가는 야만의 극치에도 세계는 그저 덤덤할 뿐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의 자이툰 부대 3천8백 명이 이라크 평화재건과 전후복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파견되었다.

이라크 전쟁의 승패는 전쟁 전부터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과의 8년 전쟁, 1991년의 걸프전쟁, 12년간에 걸친 미국주도의 경제제재로 15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놀음이나고 그들은 반문했다. 대량살상무기니 핵개발이니, 9·11테러 연계 등과 같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홍보전술은 적어도 이라크인들에게는 상식적인 허구였다. 이라크 해방과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미국이 시작한 이번 전쟁으로, 미국을 개혁의 선봉으로 보거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이라크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또 다른 이라크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른다. 국민 다수의 뜻과 이라크 전통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면 결단코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직접 선거에 의한 절대 다수 시아파 정권의 등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허수아비 정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간접 통치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라크의 민주주의

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는 날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전세계의 반대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아직도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깊은 수렁에 빠진 미국은 친미정권 수립을 위해 안간힘을 써 보지만, 그럴 가능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민간인 속에 숨은 테러분자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전쟁 이전보다 반미감정이 더욱 격화되었다. 지금 이라크에서 적어도 미군을 해방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침략자에 빌붙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부 변절자들 뿐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이라크에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을 것인가? 이라크식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다수인 시아파와 후세인 정권 시절의 특혜층이었던 순니파, 그리고 북부에서 호시탐탐 자치와 독립을 노리는 쿠르드인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조화와 공존이 가능할까?

### **인류 문명의 요람에서 독재와 전쟁의 땅으로**

이라크는 인류 5천 년 역사의 산증인이고 문명의 요람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니네베를 가졌고, 인류역사상 가장 화려한 지식 혁명의 시대를 꽃피웠던 압바스 이슬람 제국의 중심이었다. 멀리 북부의 티키에서 발원한 티크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이 만나는 곳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 바그다드다. 따라서 바그다드는 문명이 꽃피고 학문과 과학이 번성하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풍성한 문화의 황금지대를 그냥 놓아둘 리 없는 외세들은 끊임없이 바그다드를 노렸다. 기원전 550년경에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동방원정을 시작했던 알렉산드로 왕에게 정복당했다. 7세기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슬람의 도시로 번성했다. 물론 몽골

의 침략과 이슬람 문화를 공유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20세기에 들어 영국의 식민통치를 경험했지만, 1932년 독립할 때까지 이라크의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되었다. 침략과 전쟁으로 점철된 아픈 역사의 이라크. 인류역사의 문화적 보고인 이라크에서 지금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장에서 문화유산보호 운운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욕심일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 당사자들의 여유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간곡하게 인류 공동의 귀중한 문화유산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유네스코와 재건 및 인도주의 지원 사무실(ORHA) 등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군 당국에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 열여섯 곳의 리스트를 제출했다. 미국의 침공이 시작되고 인류문명의 보고인 박물관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약탈되는 모습에 인류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간곡하게 보호를 요청한 열여섯 곳 가운데 미국이 즉시 개입하여 살아남은 곳은 석유성 건물 한 곳이었다. 그곳은 리스트의 열여섯 번째 보호대상물이었다 석유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기초자료와 유물분포와 보호에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미군 병사들에게 아랍어는 우리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사실을 미리 교육시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열여섯 번째 석유성만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나머지 문화유산들이 방치되는 과오는 막았을 것이 아닌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미군의 반문명적 발상이 믿기지 않았던 미국의 한 지식인이 언론에 기고했던 냉소적 표현이다.

이런진대 메소포타미아와 오리엔트의 찬연한 문화유산과 유적지들은 전쟁 중에 거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적들을 소탕한다는 거룩한 전쟁의 이념 속에 묻혀지고 잊혀졌다. 더욱이 중세 이슬람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바그다드의 이슬람 유적지들조차 무사하지 못했다. 테러분자가 은거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예배 보는 역사적 모스크에 미사일을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이번 전쟁이었다. 이슬람 역사 1400년 동안 누구도 감히 깨뜨리지 못했던 종교적 가치에 대한 존중마저 미군은 내팽개쳤다. 이라크인들이 받았던 종교적 모멸감과 민족 자긍심의 손상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 대한 대를 이은 복수와 평소 멀리했던 급진주의자들에게 미군 공격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대리만족을 꾀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라크의 상황이다.

### 사담 후세인의 등장: 은총인가? 저주인가?

이라크 현대사는 사담 후세인과 함께 한 24년의 역사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1979년 전임 대통령 바크르를 몰러나게 하고 이라크 대통령이 되었다. 2003년 12월 미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24년간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1인 통치하면서 이라크 현대사를 이끈 장본인이다. 일찍부터 아랍민족주의를 주창했던 이집트 대통령 압둘 가멜 나세르의 영향을 받아 반외세와 아랍권 단결을 외치며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통치하에 “아랍의 석유는 아랍인에게”란 구호를 내세우고 경제개발과 군사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후세인은 정치적으로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이슬람 세력을 탄압하는 등 독재자로서의 길을 닦았지만, 이질적인 종파와 다양한 민족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이라크의 근대화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이라크를 병력 100만의 중동 최대 군사강국으로 키웠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버금가는 대산유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나아가 교육 투자를 통해 문맹률을 70%에서 30%까지 줄였고,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990년 1월에는 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독재자의 전형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민주인사의 탄압과 비밀 처형,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가혹한 박해, 권력독점과 정보정치를 통해 이라크라는 인류문명의 빛의 창고를 암흑과 두려움의 지하창고로 바꾼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영토 야욕과 걸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웃 이란과의 8년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분열과 경제적 파탄이라는 결정적 과오를 저질렀다. 물론 미국의 권유와 협력으로 시작된 전쟁이긴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8년간의 끈질긴 소모전 끝에 50만 이상의 인명 손실과 막대한 사회간접시설의 마비로 이라크를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이웃인 부유한 산유국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 발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쿠웨이트는 이라크 영토였다.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20세기 초기까지도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바스라 주에 속한 군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다. 그런데 쿠웨이트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자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이 1932년 이라크를 독립시키면서 쿠웨이트를 계속 통치하게 된 것이다. 이라크는 계속해서 쿠웨이트의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영국은 1961년 쿠웨이트를 이라크에서 분리하여 별도 국가로 독립을 시켜버렸다. 따라서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침략이지만, 이라크 입장에서는 영토회복 전쟁이었던 셈이다.

### 1차 걸프전쟁과 미국과 후세인의 동거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8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과는 그 성격이 또 달랐다. 이것은 아랍에 의한 아랍의 침공이었기 때문이었다. 후세인을 충동질하여 이란과의 무모한 소모전을 유발시킨 미국은 이번에는 야심만만한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 쿠웨이트 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전

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사담 후세인의 전략은 미국이 개입할 것이 분명한 쿠웨이트 직접 침공보다는 당시 협상 중인 사안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압박전술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쿠웨이트 영토인 부비안과 와르바 두 개 섬의 할양, 이란 - 이라크 전쟁을 지원한 쿠웨이트에 대한 외채 탕감과 상환문제, 전쟁 중에 쿠웨이트의 무제한적인 채굴에 의한 석유 도굴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쿠웨이트에게는 강경한 협상 입장을 조언하고, 동시에 이라크에게는 만약 쿠웨이트를 침공한다고 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흘렸다. 최근 체포된 사담 후세인의 입에서 만약 미국이 자신에 대한 협박을 계속한다면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대목은 이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결국 야심만만한 후세인이 미국의 시나리오에 놀아나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1주일 만에 아무런 국제적 제재나 군사개입 없이 꼭두각시 정권을 탄생시키고 상황을 종료한 것이다. 그래서야 미국은 유엔 안보리회의를 소집하고, 항공모함을 걸프해에 파견하는 등 부산을 떨었고, 다국적군 편성을 통해 6개월 가까이 흐른 시점인 1991년 1월 17일에야 이라크를 제한 공격한 것이다.

그 뒤에도 미국의 기본적인 이라크 정책은 사담 후세인의 제거보다는 미국에 고분고분한 후세인 길들이기였다. 가장 큰 이유는 후세인을 제거한 후에 이라크에 친미적인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다양한 종파와 민족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롭게 미국에 협조할 정권의 탄생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라크 내에서 이질적인 집단을 억지로 묶어두고 있는 이념적인 축이 반미였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도 반미를 내세우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특히 미국이 마냥 주장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민주적인 정권을 세운다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집권하여 이란과 연계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아랍국가들간의 전통적인 형제애와 동지적 연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미국은 아랍산유국가들간의 경쟁적인 무기 도입으로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부유한 아랍국가들에 값비싼 최첨단 무기를 팔 수 없었던 것은 이 무기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러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인근 형제국가들에 겨냥된다는 사실은 유대인의 로비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구실이었다. 8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은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산 재래식 무기의 잔치였다. 이어 아랍산유국들의 수백억 불에 달하는 미국 무기 구입으로 중동은 미국에게 석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주었다. 무엇보다 미국은 전쟁 후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 이라크로부터 왕정국가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하며 굳건한 군사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석유지역에 군사기지를 가지려던 50년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바라는 효과를 모두 거둬들인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굳이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을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다만 강력한 경제제재로 정권을 약화시키고, 철저한 무기사찰로 그의 위협을 차단하는 현상유지 정책이었다. 그런 상황은 9·11테러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대전환을 맞게 된다.

### 거짓 명분으로 시작된 전형적 침략 전쟁

전쟁은 무릇 선과 악의 함수관계다.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악을 다이나믹하게 극대화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 주는 강자의 특권이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도 그랬다. 이라크 침략 전쟁의 공식 명칭은 '이라크 해방 전쟁'이었다. 젊은 미군들은 잔혹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을 구한다는 투철한 전쟁명분으로



참전했다. 이라크 진격 첫날부터 그러한 명분은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미군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진정으로 반기는 환영의 분위기는 없었다. 곧바로 두렵고 끈질긴 저항의 자살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이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미군에 대한 저항은 좀처럼 수그리들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후세인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침략자인 미국을 이 땅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이라크인들의 확고한 애국심 앞에 미국은 고전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이번 침략을 이라크 해방 전쟁이라고 목청을 높이지 않게 되었다.

이라크 침략 전쟁은 부시 행정부의 의중 속에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9·11테러가 일어나자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테러 위협으로 불안한 미국사회의 집단 강박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병리학적 고단위 처방이 필요했다.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는 폐허의 땅 아프가니스탄을 무차별 공격해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만 양산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둔 전쟁을 승리로 자축하면서, 이번에는 보다 확실한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9·11테러 직후,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배후에 이라크가 있다고 지목하고 그때부터 이미 이라크전쟁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마련되어 왔던 것이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재 개발하고 있지 않음이 유엔 무기사찰단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미국은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삼단 논법을 내세웠다. 즉, 이라크가 향후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 무기가 테러 조직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테러 조직은 그 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과연 지구촌의 어떤 나라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 억지논리가 미국사회에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지구촌의 비극이다. 지구촌의 절대다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미국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고 있다는 사실조차 미국 국민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스탈린과 히틀러에 버금가는 학살자로 지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 북부에서의 쿠르드족 봉기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만 명을 학살하고 남부 바스라 지방의 시아파 봉기에 대한 잔학한 탄압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당시 이 사건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미국에게 쿠르드의 희생은 알파한 인도 주의적인 동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중동에서의 자국이익 보호를 위해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거나 간접 지원해 왔다. 터키 정부나 이라크 정권의 쿠르드족 탄압은 철저한 미국의 군사원조 아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20세기 말의 대혼란과 쿠르드족 학살의 현장은 미국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다른 참상에 비하면 인도적인 지원도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따라서 쿠르드족 봉기 탄압을 빌미로 후세인을 세기의 학살자로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명분은 너무도 뻔뻔하여 지성인의 말문을 닫게 한다.

특히, 미국이 강경 주도하는 이라크에 대한 12년간의 경제제재는 총성 없는 학살전쟁이었다. 생필품과 기초 의약품, 복사용지, 심지어 연필과 볼펜 마저도 심 속에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100만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죽어나갔다. 그중 절반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지구촌 최악의 인권문제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이라크였다. 지금 이라크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 인명살상을 자행한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고 믿고 저항을 계속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적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우디와 걸프 산유국들에 이어 세계 제2의 산유국인 이라크 석유를 통제함으로써 OPEC의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명실 공히 군사

력과 경제를 동시에 장악한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이번 전쟁으로 가장 반미적인 이란을 압박함으로써 중동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과도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와 핵 사찰 압력이 그것이다. 동시에 후세인 정권 제거로 인근 중동 왕정 독재국가들에게 미국의 힘을 보여 줌과 동시에 그들을 민주화로 이끌어 줌으로써 명실 공히 중동에서의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장밋빛 플랜도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이라크와 중동에서의 분위기는 미국의 희망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반미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인 이스라엘 두둔 정책과 국제법과 국제사회 합의 불이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소련 붕괴 이후에 가속화되는 미국의 '이슬람 죽이기' 정책에도 중동 전역이 강한 우려와 적의를 키워가고 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키슈미르와 체첸, 소말리아와 최근 수단의 다푸르 지역에서 미국이 보여 준 불공정한 이슬람 반대정책에 많은 이슬람권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격렬한 테러보복**

이라크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로 이라크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했으나, 저항과 자살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을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후세인의 체거로 이라크가 전쟁 이전보다 더욱 혼미스럽고 자칫 내전상태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을 반대하던 많은 중동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결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을 위한 해방전쟁이라는 미국의 거창한 구호는 어느새 꼬리를 감췄다. 이라크 국민들은 혼신을 다해 미국에 저항하고 있다. 후세인이 좋아서도 그를 다시 권좌에 앉히기 위해서도 아니다. 신성한 조국

을 침략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테러도 아니고,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팔려간 정치적 집단의 저항도 아니다. 외국인에게 점령당한 자신의 조국을 되찾아야 된다는 몸짓일 뿐이다. 나라를 뺏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점령군을 환영하는 민족은 이미 혼과 정신을 잃은 희망 없는 족속일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저항을 테러나 후세인 잔당들의 발악쯤으로 폄하하려는 미국의 심정은 측은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함께 춤추며 날뛰는 우리 언론이다. 물론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가공할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전방식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저 몸을 바쳐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침략자에 맞서는 것이다.

침략자인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이라크의 저항 투쟁은 반미 복수에 들끓고 있는 외부의 이슬람 무장조직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라크에 몰려들었다. 일부는 이라크 민중들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테러를 응징한다며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사실 중동에서 테러와 거의 연계가 없었던 이라크를 중동의 새로운 테러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사라져가던 급진 이슬람 무장 조직들이 미국이라는 주적을 만나면서 '숨을 헐떡거리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이라크에서 세력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후세인 체포로 저항이 수그러들리라는 당초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가장 강력한 반미 테러의 교두보를 이라크에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중동에서의 테러는 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이 그 배후에 있지만, 뚜렷한 직접대상이 없어 대미테러는 한계를 가졌었다. 중동 한복판에 미군이 국제법을 어기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은 명분과 여론 지지에서 테러집단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기인 것이다. 물론 잔혹한 방식으로 무고한 인질을 살해하는 일부 급진테러조직들에 대해서는 일반 이라크

국민들도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미군에 대한 저항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군에 의해 모욕당하고 그들의 무차별 공격에 의해 가족과 친지를 잃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러한 이라크인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찾지 않는 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항조직들은 결코 후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후세인이 싫지만, 미국이 더 싫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다. '어쩌면 무너지는 후세인 동상으로 밀어 있는 미군을 끌어뜯개고 싶은 심정'이 지금 대다수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후세인 동상의 제거에 환호하는 대부분의 민중들조차 동원된 관제 데모대였다는 사실이 이미 알 자지라 방송의 다큐멘터리로 밝혀졌다. 후세인 제거에 대한 환호와 미국의 손쉬운 이라크 점령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미국은 처음부터 간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침략을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해방이라고 우기며 시작할 때부터 이 전쟁의 실패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 **민정이양과 과도정부의 역할과 이라크의 미래**

2004년 6월 28일, 미군 당국은 이라크 임시정부와 임시의회를 구성하고 형식상 이라크 문제를 이라크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예정보다 며칠이나 앞당겨진 조치였다. 그러나 민정이양은 조용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환호하는 사람도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아무도 미군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라크 정부에게 넘겨주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권과 군 작전 지휘권, 법률개폐권이 아직 미군에게 있고, 국내외의 주요 결정사항에도 미군은 깊숙이 간여하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제헌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견제할 100명의 임시의회도 대부분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출신 19명과 각 종족 종파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라크의 장래는 미국의 태도에 전적

으로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라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미국이 쉽게 이라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보면, 이라크의 장래는 지금보다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복합사회다. 1932년 이라크를 독립시키면서 영국이 만들어 놓은 통치전략의 불행한 결과다. 북부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터키에게 석유 이권을 박탈했다. 종교적으로는 순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쿠르드 지역에는 이라크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4백만이 자치를 누리며 독립을 꾀하고 있다. 모술과 키르쿠크 같은 유전지대가 쿠르드 지역에 속해 있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은 유전확보를 위해 강제 인구이동을 통해 이 두 지역의 인구구성을 역전시켜 버렸다. 현재는 아르빌과 술레이마니예 지역에서만 쿠르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쿠르드 양대 투쟁조직인 쿠르드 민주당(KDP)과 쿠르드 애국동맹(KPU)이 권력과 지역을 분점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에는 터키와 깊숙이 연계된 투르크멘족들이 살고 있다. 만약 쿠르드족들이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터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남쪽에는 이라크 국민들의 6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 시아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비호하는 미국의 협조로 권력에서 소외되어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 왔다. 1979년 이란에서의 이슬람 혁명 성공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가 득세하면 같은 시아파인 이웃 이란과 연계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벨트가 형성되는 것을 후세인과 미국이 모두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파와 종족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까지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을 조정하면서 이라크 국가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슬

람의 공통적 가치, 반미라는 강력한 연대의식, 후세인 정권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독재였다. 그러한 후세인의 독재를 지지해 주고 심지어 강화시켜 준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다.

이처럼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돌발변수가 너무나 많다. 우선 다양한 집단들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이끌어 갈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쿠르드의 자치와 독립에 대한 것도 터키와 이란, 시리아 등 주변국가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시아파 중심의 정권도 민주적인 절차에는 부합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밤잠을 설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언제 바로 이웃의 이란과 연계하여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의 고집은 자칫 이라크 국가 통합을 해치고 혼란 상태를 초래하여 레바논에 버금가는 내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강요도, 이란식의 신정체제의 고집도 아닌 정교가 어느 정도 분리된 세속적인 시아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중동 전문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지적한 대로 “이란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터키보다는 더 종교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아가 중심이 되면서도 순니의 이익배분이 보장되고 이질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쿠르드가 느슨한 연방의 형태 내에서 광범위한 자치를 갖는 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2006년 1월부터 들어설 이라크 신정치체제의 골격들이다. 물론 어떤 정치체제가 등장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가치를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체제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세계 여론을 거스르며 힘든 전쟁을 치르고 난 미국은 어떤 상태에서도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친미를 고집하다 보면 또 다른 독재정권의 탄생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덜 반미적인 정권으로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하루 빨리 미군

위주에서 유엔주도의 국제평화군으로 대체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면서 국가 테러의 주범인 이스라엘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사담 후세인을 막는 첩경일 것이다.

동시에 테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극단적인 증오심과 일상적 생존의 투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에 소요되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안보비용은 매주 10억 불에 이른다. 1조 2천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매주 쏟아 붓고 있다. 그 돈의 단 10%만이라도 가난한 국가, 강대국의 이권다툼으로 나라를 잃고 난민이 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저개발 극빈층, 기후와 기상이변으로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지구촌 이웃에게 보내진다면 안보위협은 현저히 줄어들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평등한 지구 공동체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비전과 용기와 확신을 가진 지도자를 갈망하는 것은 이 상흔자의 한낱 헛된 꿈일까?

### **이라크 전쟁이 가져다 줄 중동의 변화**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공으로 중동 전체 민중들의 반미정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각인되었다. 침공 명분뿐만 아니라, 침공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점령 후의 오만한 강공책과 이슬람 정신유산에 대한 경시,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등으로 막연하고 관념적인 반미정서가 보다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반미운동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이슬람 강경세력을 자극하여 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동시에 인근 아랍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교훈이 되었다.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며 비민주적인 독재자의 과오와 몰락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면전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아랍국가의 민주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특히 석유로 부를 축적한 산유국 왕정국



가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미국에 의존해 왔던 이들 정권에 대한 반미적 인 민중들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회제도가 활성화되고, 사법제도의 개혁,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여성의 운전조차 허용하지 않던 사우디의 변화는 곧 아랍 전체의 혁명적인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전쟁은 21세기를 장식한 추악한 전쟁의 전형이었다. 그렇다고 옆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다. 한편 전쟁은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구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가 마련되는 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라크 전쟁이 중동에서의 민주화 바람을 촉진시키고, 일방적이고 오만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맞는 교훈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 ■

---

이희수 lee200@dreamwiz.com | 이슬람대학 역사학 박사.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중동 전역에서 25년간 필드워크 수행. 저서로는 『이슬람』, 『중동의 역사』, 『터키사』, 『끝나지 않은 전쟁』 등 다수가 있다.